

가뭄으로 인한 야채 공급 감소로 가격 급등 및 급락

□ 주요내용

- 최근 길어지는 가뭄으로 인해 자카르타 북부 마자렝까 지역의 야채 상품 가격이 평소 가격의 3배까지 급등함.
- 가격 이외에도 몇 가지 야채 제품은 최소 공급량조차 충당되지 못하는데 최근,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렘방, 반둥과 바투, 말랑, 동부 자바와 같은 지역 외부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음.
- 찌가송 시장 상인들은 마자렝까시장의 야채 가격은 3 주 전에 비해 양배추 가격은 기존 Rp5,000/kg에서 Rp9,000/kg로 상승하였고, 당근은 기존 Rp9,000/kg에서 Rp5,000가 상승한 Rp14,000/kg에 거래되고 있다고 함.
- 반면 토마토는 농장 출하 가격이 Rp1,000/kg이 떨어졌으나, 시장에선 Rp400/kg 증가하여 Rp5,000/kg 혹은 Rp6,000/kg 판매되며, 대파는 kg 당 Rp5,000가 증가하여 Rp7,000/kg로 거래됨.
- 날씨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야채인 감자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거래되고 있어 감자 종류의 따라 kg당 Rp7,000와 Rp8,000에 거래되고 있음.
- 빨간 고추 역시 가격이 오르지 않은 kg당 Rp2,000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빨간 고추의 소비가 많지 않아 썩거나 부패하여 버리는 것이 많음. 그래서 상인들은 고추를 말려 판매하거나 혹은 말린 고추를 갈아서 판매하기도 함.
- 가지는 Rp3,000/kg에서 50% 하락한 Rp1,500/kg에 거래되고 있고, 강낭콩 역시 kg당 Rp6,000에서 Rp4,000/kg로 오이는 Rp4,000/kg에서 kg당 Rp3,000로 하락함.

□ 시사점

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건기와 우기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가뭄이 계속되면서 채소 공급이 감소되고 가격 증감폭이 커 소비자들의 현지산 농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. 하지만, 인도네시아 루피아 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입산 농산물 또한 가격이 올라 수입농산물 소비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임

자료 : BERITA TERKINI INDONESIA(2015-11-1)